

# CONTENTS



## 차례

공주의 어제와 오늘 2  
 공주교도소

웅진칼럼 \_ 3  
 조화와 상생의 문화시민 교육 \_ 김종성

아름다운 공주가꾸기 \_ 6  
 아름다운 간판 / 신용희

<연재>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⑩ \_ 8  
 공주를 오가며 / 백원철

특집 \_ 14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⑩ / 장길수

<연재>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④ \_ 18  
 공주사람, 이걸재 씨 / 나태주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⑧ \_ 22  
 공주여성의용소방대

<연재>향토사료 \_ 24  
 무령왕 이야기② / 윤용혁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27  
 탄천면 남산리

공주의 인물 \_ 34  
 성제원 선생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소감문 \_ 36

내고장 소식 \_ 42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56

문화원 소식 \_ 62



아름다운 공주가꾸기



봉사단체를 찾아서



시민화합 체육대회



독거노인 이·미용 봉사



마곡사 신록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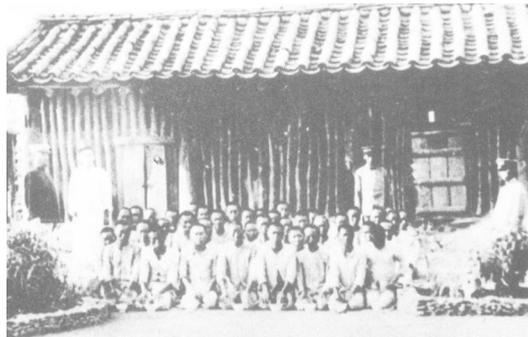
## 공주교도소

### 공주교도소 연혁

- 1908. 4.11 충남 공주시 교동 3번지에 공주감옥으로 개칭
- 1923. 5. 5 공주형무소로 개칭
- 1961.12.23 공주형무소를 공주교도소로 개칭
- 1978. 9.13 공주시 금흥동 360번지 현재 위치로 이전



1900년대 초반의 공주감옥. 당시 위치는 지금의 교동 중앙장로교회 부근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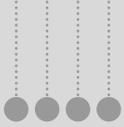
구 공주감옥 외감옥(1914 의병수용사진)



1960년대의 공주형무소



100주년을 맞은 최근의 공주교도소



김 종 성 \_

\_ 前 공주교육장  
\_ 現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조화와 상생의 문화시민 교육

학교현장을 찾으면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다. 몸은 다소 왜소하고, 얼굴이 약간 검은 듯하며, 말하는 모습이 좀 어눌해 보인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천진난만하고 즐겁게 웃으며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쁘게 보인다.

국사 교과서에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한때는 외세의 병탄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굳건한 민족 정신은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고수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또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건너온 사람도 있다. 순혈주의는 무너지고 어느새 다인종국가로 바뀌고 있다.

이는 유구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변화이다. 이 변화를 모두가 빨리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백안시(白眼視)될 수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도 다문화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수준은 아니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웃으로 함께하는 조화와 상생의 한국적 다민족·다문화주의 모델을 개발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 남성의 40%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의 여성과 결혼하였다. 농어촌에 시집오는 신부 1/3 이상이 외국 여성인

## ‘대학생멘토’를 통하여 사회 선배와의 대화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셈이다. 이 통계도 한 해가 다르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충청남도의 경우만 하여도 2005년 다문화 가구수가 1,514가구이던 것이 2007년 2,109가구로 증가하였다. 학생수도 2006년 874명이던 것이 2007년 1,160명으로 일 년 만에 32.7% 증가하였다. 취학전 자녀수도 1,548명이나 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들이 더 이상 문화 소외계층에 머물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신소외계층으로 밀려나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밝지 못하다. 이들이 그늘진 곳이 아니라 따뜻한 양지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각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특히 어머니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내고 대화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평생교육원이나 방과후학교, 가족캠프, 야학 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어머니들이 한국어 부담에서 벗어날 때 그 자녀들도 기초학습 부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미 공주교육청에서는 ‘이글’ 한글교재를 발간하여 어머니와 자녀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보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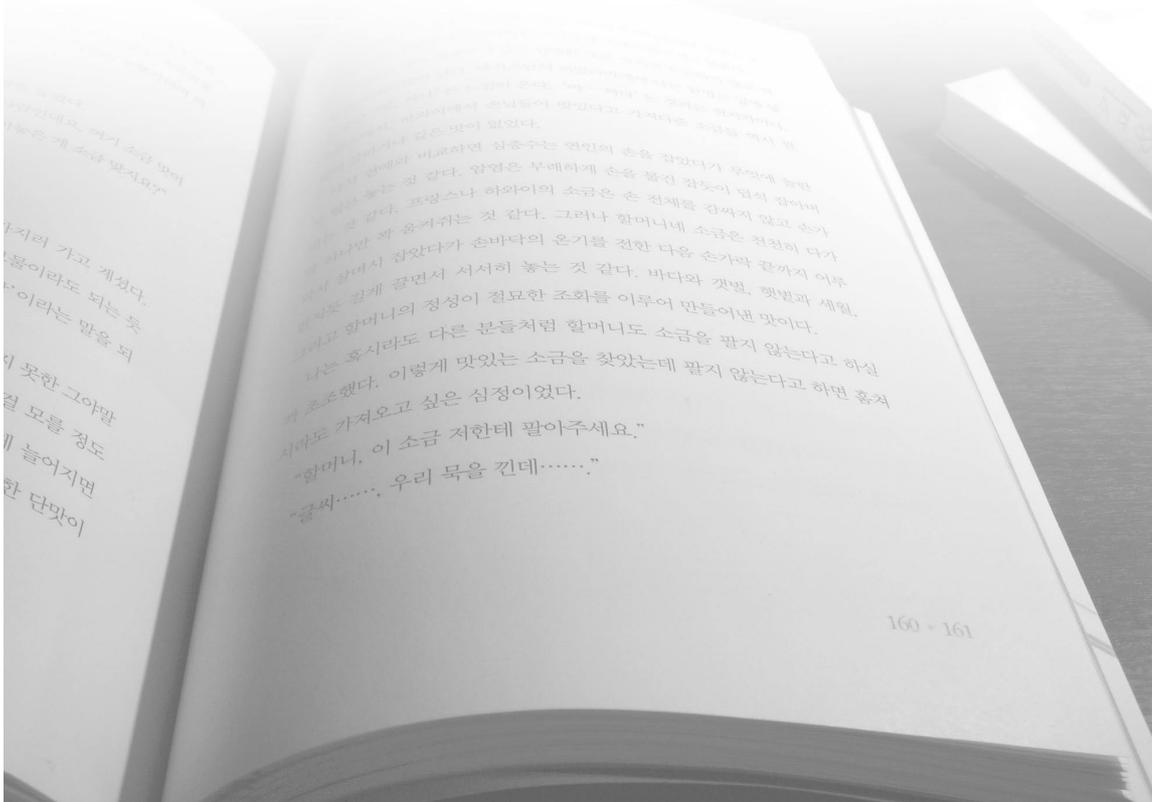
다음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예절이나 에티켓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사람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싹틀 수 있다. 오랫동안 살다보면 저절로 익힐 수도 있지만 체험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이들이 손쉽게 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도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담교사를 1:1로 맺어주



어 선생님과의 소통을 열어주고, '도우미친구'를 지정하여 교우관계를 넓혀 주어 따돌림을 막아주어야 한다. '대학생멘토'를 통하여 사회 선배와의 대화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줄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배려이다. 그들이 희망을 지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선하고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할 일이다.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 가능자를 학습보조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영어교육을 보조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영어구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사회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이들이 문화시민으로 거듭나 함께 조화와 상생의 삶을 꾸려나갈 때 우리의 행복체감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할 때 우리도 진정한 행복할 수 있다.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1업소 1간판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편집자



### 이쁜옷이 있는 '이쁜 옷' 집

재활용과 경제, 두 마리 토끼잡아

아담한 크기의 '이쁜 옷'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 집은 공주시 중동 작은사거리에서 문화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한아름(여, 57세)씨와 전희숙(여 29세)씨 부녀가 운영하는 이 옷가게는 구제옷을 판매하는 곳이다. 구제옷이란 이미 다른 사람이 한 번 이상 입었던 옷을 말한다.

'이쁜 옷'이라고 점포명을 지은 이유를 묻자 전희숙씨는 "손님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서기 위해서이고 구제옷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이쁜 옷만을 골라 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내는 안목만 있다면 얼마든지 싼 값에 멋을 즐길 수 있고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과 같은 옷을 입을 염려도 없고 외국에서 건너온 옷들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엇비슷한 유행의 국내 제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닐 수 있어 '이쁜 옷'이라는 간판과 딱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점포 하나에 간판이 2~3개씩 그것도 점포 반을 덮을 정도로 크게 간판을 내거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이쁜 옷'가게는 1개의 아담한 간판 뿐 유리벽 너머에는 구제품들로 가득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며 구제품들을 볼 수 있도록

# BEAUTIFUL GONGJU



유리벽에도 구제품들이 장식되어 있다.

달리 간판을 더 걸지 않아도 된다는 전희숙씨는 “구제품 판매사업은 사회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두면 쓰레기가 되는 물건들을 정성스레 다듬어 놓으면 주인이 찾아가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며 “이것이 바로 재활용도 되고 경제적 가치로도 유용하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간판 상식

### 적법하지만 가로환경을 해치는 간판들

간판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면서 간판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진들은 적법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 ① 간판과 서체 모두 너무 커서 보기에 부담을 준다.
- ② 세련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서체가 무모하리만큼 크고 네온조명은 난잡하다.



신용희 | 명예기자

## 공주를 오가며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존재(存齋) 박윤묵(朴允默, 1771~1849)공이 남긴 문집 존재집(存齋集)에는 공주 관련 시 몇 수가 실려 있다. 공은 만년에 충청도 수영(水營)관할의 평신진(平薪鎭)의 첨사(僉使, 종 3품직)를 지낸 바 있는데, 때는 공의 나이 64세, 현종 1년 을미년(1835)이다. 실록 등에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아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행장(行狀)에 의하면 內閣에 오래 근무하면서 정조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그 뒤에 순조 기묘년(1819)에 통정에 오르고, 정해년(1827)에 가선대부, 신묘년(1831)에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위 기록에 의하면, 공의 사환은 그리 현달하지 못한 듯 뚜렷한 실적을 역임하지 못하였고, 그것도 만년에 가서야 외직인 평신진첨사를 끝으로 관인의 길을 마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 감영이 있는 공주를 왕래하며 몇 수의 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쌍수는 지금 어떠하냐	雙樹今何似
외로운 성은 아직도 완연하구나	孤城尙宛然
강가에 임하니 지난 역사 떠오르는데	臨流傷往事
임금님 머무심은 그 어느 해더냐	駐蹕問何年
천연의 요새지도 비록 소중하나	天塹雖爲重
사람의 지략이 더 우선이라네	人謀亦在先
문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寄語抱關者
근신하여 해 솟을 때 까지 잠자지 말라	慎莫日高眠

卷二, 十一, 「渡錦江望雙樹山城」

지은이는 쌍수정이 있는 산성을 바라보며, 이괄의 난 때 인조대왕이 피난 왔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역시 지리적 요새가 비중이 크다 하나, 그 보다는 사람의 계책이 더욱 우선함을 일깨우고 있다.



다음은 금강 가에 서서 학이 나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가을 학 공중에서 가로질러 내릴 듯하더니	秋鶴盤空氣勢橫
가벼이 돌아 날개 짓하며 강과 성을 지나네	翩然迴翮過江城
물가에 홀연히 한 쌍의 그림자 비추더니	水邊忽下一雙影
바람타고 때때로 우는 소리 들리네	風外時間兩三聲
후적벽부에서 소동파의 꿈을 놀래켜 깨웠고	後賦曾驚蘇子夢
전신은 정영위의 이름을 붙여 불리운다네	前身堪喚令威名
돌아가는 배여 나루터 방황하는 객을 비웃지 마소	歸舟莫笑迷津客
다른 날에 봉래산에서 세상을 등지고자 한다오	他日蓬山背上情

卷六, 七, 「錦江見雙鶴飛下聲甚嘹亮」

소동파가 지은 후적벽부(後赤壁賦)에는 밤하늘을 울며 나는 외로운 학이 나온다. 소동파가 잠이 들었을 때 한 도사가 날개옷을 입고 하늘을 날면서 소동파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는데, 이때 소동파는 전날 밤의 하늘을 날던 학이 곧 이 도사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한나라 때 요동인 정영위는 영허산(靈虛山)에서 도를 닦아 학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라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를 보면 지은이 존재 역시 학을 보며 신선세계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마도 만년의 순탄치 못한 환로 등은 얼마만큼 지은이에게 염세(厭世)의 정을 일으켰을 법도 하다.

다음은 웅진객관에서 조정의 명을 기다리는 소감을 읊은 시이다.

전패는 숭엄하게 채색 기둥 사이에 모셨는데	殿牌崇嚴啓彩楹
세 차례 향불 올림에 쌍 촛불이 밝다네	爐香三上燭雙明
앞뜰에서 북을 바라보니 하늘이 가까이 닿았고	前庭北望天臨近
외로운 진 서쪽으로 부임하니 지역도 영광스러웠지	獨鎮西來地分榮
모든 일 크게 변했으며 날날이 몸소 겪었는데	萬事滄桑身閱歷
네 분 임금의 은혜에 눈물만이 흐른다네	四朝恩屋漏縱橫
비단 깃발 금빛 갑옷 모두 어울리지 않으니	錦旗金甲俱無稱
이제부터 술잔 잡고 못난 처지로 살아가리	自是操觚白面生

卷十, 二十二, 「熊津館延命日謹書感」

존재가 첨사로 부임한 곳 평신진(平薪鎭)은 충청도 서해안의 작은 진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에 보이지 않는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방선(防船) 2척과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 등 모두 5척을 소유하는 곳으로서, 마량진(馬梁津)등에 비하여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런데도 공무수행이 그리 순탄치 않았던 듯, 끝 시구(尾旣)에서는 수령의 옷을 벗고 술이나 마시면서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 살아가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주객관(웅진객관)에서 조정의 명을 기다린다고 함은, 아마도 해임이나 교체의 명을 기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시는 공주 동천에 머물며 지은 시이다.

길을 가다 동천에 다다르니	行到銅天上
물은 깊어 몇 길이나 되네	水深數篙餘
논밭은 이미 잡겼고	田野已墊沒
길 위에 개구리 물고기 널려있네	道上亂蛙魚
앞에는 한 척 조각배도 없으니	前無一葉舟
또한 나루터에 처음일이네	又如郡津初
달려가 마을 집에 들어서니	走入村舍中
넘친 물은 집 섬돌까지 찻다네	餘波到階除
화로를 끼고 젖은 옷 말리노라니	擁爐燎濕衣
웅기종기 모인 모습 사슴 무리 같네	相聚麕鹿如
보리밥도 참으로 다행이며	麥飯誠可幸
파김치 또한 먹을 만하네	蔥根亦堪茹
오뚝하게 한 방에 앉아 있으니	兀然坐一室
편안하기 마치 우리 집 같다네	安閒似我廬
만일 한 수 좋은 시구 얻는다면	若得一佳詩
열흘을 묵은들 안 될게 무어냐	何妨十日居
물길 기세도 내일은 줄어들 것이니	水勢明當殺
산뜻한 기분으로 거침없이 가리라	浩然凌清虛

(卷十, 二十二), 「公州銅川阻水」



시 내용은, 홍수로 인하여 동천에서 길이 막혀 머물게 된 것을 읊은 것이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등 옛 읍지에 보면, 동천은 주 서쪽 20 리에 있고 무성산 각흘치와 정산 대간산(大杆山)의 물이 모여 동남쪽으로 흘러 유구와 신평을 지나 금강에 흘러든다고 하였다. 지금 우성면의 동천(銅川)으로서 뒤에 이곳에 보(湫)를 쌓아 동천보(銅川湫)로 부르며, 구리내보 또는 통천포라고도 한다.

시구<만일 한 수 좋은 시구 얻는다면, 열흘을 묵은들 안 될 게 무어나>에서는, 공무를 띠고 가는 행장이기 보다는, 관복을 벗고 홀가분하게 떠나가는 행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마도 앞의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직을 떠나 상경하는 도중에 큰물을 만나 동천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은이는 다음날 아침 또 한 수의 시를 짓고 있다.

물노니 아침에 물 깊이는 어떤가	試問朝來水幾深
중림 숲까지 물이 닿았다고 말하네	下流報道及中林
수행자들아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騷徒莫使亂狂氣
군자는 마땅히 조심하는 마음 가져야지	君子宜存戒懼心
조금 기다리면 곧 몸이 편안해 지지만	少待須臾身可穩
만일 급히 서두르면 재앙이 따른다네	若圖急速禍應侵
작은 퇴침 찾아 그대로 쓰러져 누우니	亂來小枕仍頽臥
사나운 물결일랑 백천 길이라도 놔두려무나	惡浪任地百千尋

卷十, 二十三, 「銅川村舍朝起」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은이는 앞일을 걱정하기 보다는, 길이 막힌 현상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어, 한껏 여유를 즐기는 듯 하다. 어쩌면 그동안의 환로에 지친 심신의 안식을 비로소 찾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지은이는 평생 낮잠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 때에야 오수(午睡)의 달콤함을 누렸다고 실토하는 시를 쓰고 있다.

젊은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小少至白紛
일찍이 낮잠을 모르고 살았다네	未嘗作午眠
사람들은 낮잠의 달콤함을 말하며	人云黑恬餉
그 맛은 천하일품이라 하네	其味得天全
어리석은 나도 일찍이 들었지만	癡我曾聞之
정말 그럴까 의심만 품었었지	其然豈其然
어렸을 때는 과거 글 읽기에 바빠	童時勤課讀
종일 책상 앞에 있었네	竟日書床前
자라서는 관직을 맡아서	及長役于公
40년을 분주하게 보냈다네	奔走四十年
밤잠조차 실로 여유가 없었으니	夜寢固未遑
낮잠이야 더욱 인연이 없었지	在午尤無緣
습관과 성격이 함께 굳어져서	習與性俱成
도리어 마음에 편하지 않았다네	反非意所便
오늘에야 장마 비 만나서	今日遭苦雨
동천에서 폭 머무르게 되었네	淹留於銅川
갑자기 잠이 몰려와서	忽焉睡思來
작은 베게 배고 잠이 들었었네	半餉小枕邊
잠이 깨자 온 몸이 가벼워졌으니	及覺四體安
사람들이 말이 어찌 아니 옳은가	人言豈不賢

卷十, 二十三, 「午睡」

위 시에서 지은이는 40여년을 관직에 종사하며 분주하게 살았다고 회고 하면서, 그리고 이 때 장마 비로 물이 불어 건너 갈 수 없는 이곳 동천에서야 비로소 심신을 쉬며 낮잠도 맛보았다고 한 것이다.

다음 시를 보면, 지은이의 공주 왕래 기간이 3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 물과 맺은 인연 내가 가장 많으니	錦水清緣我最多
3년이나 왕래하며 쌓은 정 얼마일까	三年來往奈情何
강물 속에 돛 내리면 언덕에 꽃이 환하고	中流停棹花明岸
밤이 되어 뱃머리 두드릴 때 물속에 달이 뜨네	半夜敲舷月在波



존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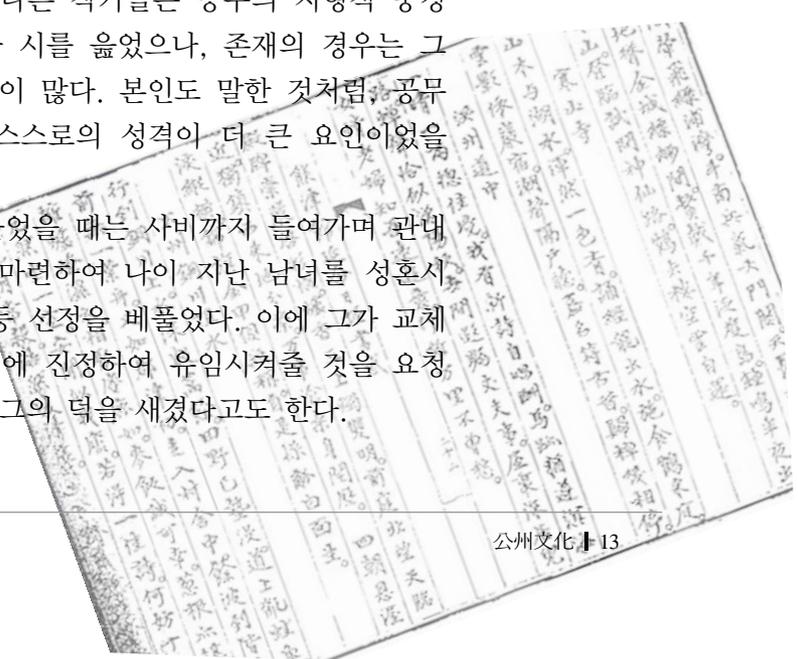
함께 앉은 어부들도 서로 정이 깊이 들었는데	一席漁人相繼眷
갖가지 풍경을 몇 수나 읊었더니	百篇景物幾吟哦
이제 다시 이곳에 와 남김없이 둘러보니	今來此地無遺矚
눈이 만든 새로운 경치 사방에 들렀네	雪作新圖又四遮

卷十三, 二十四, 「雪後渡錦江」

이로써 보면 지은이가 평신진 첨사로서 재직한 기간이 삼년에 걸쳤으며, 그 때문에 공주를 왕래한 기간도 그만큼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위에서 살핀 존재의 여러 수의 한시는, 여느 문인한사(文人閑士)들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 곧 대체로 다른 작가들은 공주의 지형적 풍경과 역사적 유래를 즐겨 소재로 삼아 시를 읊었으나, 존재의 경우는 그 보다는 본인 주변의 상황을 읊은 것이 많다. 본인도 말한 것처럼, 공무에 분주한 것도 있었겠지만, 역시 스스로의 성격이 더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첨사로 부임해서는 흥년이 들었을 때는 사비까지 들어가며 관내 백성들을 구휼하였고, 역시 경비를 마련하여 나이 지난 남녀를 성혼시켰으며, 노인들을 극진히 봉양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이에 그가 교체되어 떠날 때 부민들이 감영과 조정에 진정하여 유임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가 돌아가자 비석을 세워 그의 덕을 새겼다고도 한다.



##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1)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 4. 사찰터와 땅이름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전국의 명산은 물론, 도시지역에도 크고 작은 사찰이 많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졌다. 오랜 세월 속에 식사동(食寺洞, 고양시 일산구), 엄사리(庵寺里, 계룡시), 율사리(栗寺里, 당진군 면천면)처럼 절 이름이 땅이름으로 전이되는가 하면 절골, 불당리, 탑곡리 등 절과 관련한 땅이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공주는 충남 제일의 사찰인 마곡사를 비롯하여 갑사, 동학사, 신원사 등 유명한 사찰이 많이 있는 곳이다. 세월이 흐르며 절이 사라지고 탑, 부처 등 흔적만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흔적도 없이 땅이름으로만 그 자취를 엿 볼 수 있는 곳도 많다.

#### 1) 절이름과 땅이름

대통교(大通橋) : 공주시 반죽동 사대 부근 앞 제민천에 놓여있는 다리가

대통교이다. 백제 시대에 이 다리 부근에 대통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다. 대통사를 오가던 다리라 하여 '대통교'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대통교'라 불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보통 사찰 부근의 다리 이름은 '극락교', '반야교' 등 절 이름 보다는 불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대통사는 없어지고 다리만 남아 대통사를 오가던 다리라는 뜻으로 대통교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불산(冠佛山) : 유구읍 녹천리에 있는 산. 유구읍의 진산으로 높이는 399m이다. 이 산 중턱에 관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 이름에서 산이름으로 전이된 듯하다.

관불산(冠佛山) : 의당면 용암리와 중흥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330m이며, 전에 관불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선근이(善根-)** : 이인면 초봉리 푸새  
 울 남쪽에 있는 큰 마을. 예전에  
 성근사(聖根寺)가 있었다고 한다.  
**밤절** : 탄천면 안영리. 밤나무가 많  
 은 곳에 절이 있었다 하여 밤절이  
 라 한다.  
**청림** : 탄천면 가척리. 청림사라는  
 절이 있었기에 청림이라 불린다.

2) 절터와 땅이름

**구절고개** : 공주시 오곡동에서 목동  
 리로 넘어가는 고개. 구절산과 관  
 계있는 땅이름이다. 이 고개는 지  
 금 거의 다니지 않고 있다.  
**구절산** : 이인면 목동리와 공주시 오  
 곡동, 태봉동과 경계에 있는 산  
 (330m). 옛날에 아홉 개의 절이  
 있어서 구절산이라 부르며, 구사산  
 (九寺山)이라고도 한다. 일설에는  
 산의 구비와 마디가 많아 구절산  
 (九節山)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  
 은 무수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  
 금은 절이 없고 몇 군데에 그 터만  
 남아 있다고 마을 어른들이 증언하  
 고 있다. 그리고 구절산 남쪽 기슭  
 (목동리 쪽)에 국선도에서 단전 연  
 수원인 천선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  
 다. 신평면 입동리와 백룡리, 선학  
 리 사이에도 구절산(355m)이 있  
 다. 이곳에는 구룡사란 절이 있다.  
 구사산(九寺山) → 구절산

**뒷절** : 의당면 요룡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절이 있었다.  
**사곡면(寺谷面)** : 공주시 북서쪽에 있  
 는 면. 마곡사가 있는 절골의 이름  
 을 따서 사곡면이라 한다. 사곡면  
 은 이름에 걸맞게 마곡사를 비롯하  
 여 백련암, 은적암, 약수암, 남가섭  
 암 등 수 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다.  
**사근절골** : 웅진동 절골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로 삭은절이 있었다고 한다.  
**소리절** : 유구읍 탑곡리 탑곡1구. 예  
 전에 소리절(혹은 소래절)이 있었  
 다고 한다. 소곡리라 하였는데 탑  
 산리와 합하여 탑곡리가 되었다.  
**절골(寺谷)** : 예전에 절이 있었던 골  
 짜기로 공주에는 여러 곳에 보이는  
 땅이름이다. 공주시 금학동, 현재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  
 도 그 중의 한 곳이다. 이외에도  
 신평 대룡리·화양리·화흥리, 의  
 당면 월곡리, 이인면 구암리·달산  
 리·운암리·복룡리, 탄천면 대학  
 리 등 도처에 많이 있다.  
**절뜸** : 탄천면 광명리. 절이 있는 작  
 은 동네라 하여 절뜸이라 한다. 지  
 금은 절은 없어지고, 절터는 밭으  
 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셋 채의  
 집이 그 터 주변에 있다. 뜸이란  
 큰 마을 가까이에 따로 몇 집씩 이  
 루어진 작은 동네를 말한다.  
**절터골** : 정안면 문천리 사기코빠기  
 밑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었다.

신평면 화양리 북쪽에도 절터골이란 마을이 있었다.

죽절 : 이인면 목동리 6반에 있는 마을. 뒷절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한적골(閑寂-) : 신관초등학교와 공주교도소 사이에 있었던 큰 골짜기. 전에 큰 절이 있어서 한절골이라 불리던 것이 변하여 한적골로 불리고 있다. 몇 개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개발지로 구획 정리되어 옛날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 3) 부처와 관련된 땅이름

당골 : 우성면 봉현리에 있는 마을. 부처를 모신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당곡(堂谷)이라고도 불린다.

부처당 : 우성면 상서리에 있는 마을. 부처(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불당골(-堂-) : → 불당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불당고개(佛堂-) : 정안면 장원리 구활원에서 의당면 덕학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예전에 이곳에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불당이란 부처를 모신 집을 말하며 불전이라고도 한다.

불당골(佛堂-) : 예전에 불당이 있었던 골짜기로 공주의 땅이름에 많이 나타난다.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신평면 동원리·선학리, 유구읍 노동리·문금리·명곡리·신영리 등

불당곡(佛堂谷) : → 불당골

부당골(-堂-) : → 불당골.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불무산(佛舞山) :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와 이인면 이곡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84m 이다. 부처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한다.

### 4) 탑과 관련된 땅이름

탑거리 : 정안면 문천리 문성 서북쪽에 있는 마을. 전에 탑이 있었고 벼루(벼랑)가 있다.



탑거리(탑골) 정안면 문천리

탑곡(塔谷) : → 탑골

탑곡내(塔谷-) : → 탑골내

탑곡교(塔谷橋) : 유구읍 문금리 서쪽, 탑곡내와 문천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 위치한 다리. 탑곡리 1구와 2구 사이에도 탑곡교와 같은 이름의 다리가 2개 있다.

탑곡리(塔谷里) : 유구읍 북서쪽에 있는 리. 탑산리와 소곡리가 합하여 탑곡리가 되었음. 지금은 탑산리를 탑곡2리, 소곡리를 탑곡1리라 부른다. 공주에서 가장 북쪽 끝이 된다.

탑곡천(塔谷川) : → 탑골내

탑골1 : 신평면 동원리 원골 뒤에 있는 골짜기. 삼층석탑이 있다.

탑골2 : → 탑거리

탑골내 : 유구천의 상류이며, 탑골 북서쪽 봉수산에서 발원하여 탑곡리의 중앙을 흐르는 내. 남동쪽으로 흘러 문금리 경계에서 금천과 합하여 유구천이 된다.

탑동(塔洞) : → 탑상골

탑립리(塔立里) : → 탑서니, 탑산리

탑산(塔山) : 웅진동 국립공주박물관 북쪽에 있는 마을. 박물관 정문 앞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소로가 정지사길이며, 정지사길에서 동쪽으로 갈라진 길이 탑산마을로 가는 탑산길이다. 공주 현감이었던 신유(申濡)의 공주 후십경시(後十景詩)에 '정지사(艇止寺)'란 시가 전해온다. 정지사란 절과 그 절에 있던 탑이 지금의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

하면 예전에 한 길이 넘는 탑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한다.

탑산리(塔山里) : → 유구읍 탑곡리 2구. 봉수산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전에 탑이 있었으나 언제부터가 없어지고 지금은 탑이 있었던 터만 남아있다.

탑상골 : 탄천면 안양리 위안양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탑이 있었다.

탑상리(塔上里) : 공주시 금학동. 현재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고 있는 터. 전에 절터와 함께 탑이 있었다고 한다.

탑서니 : → 탑산리

천탑마을 : 사곡면 부곡리. 부곡리는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많은 탑을 쌓았다. 절과는 관계가 없으나, 부자 마을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금도 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다.

동원리 석탑과 탑골(2008.3.29)



탑곡리 탑산의 탑터(은행나무 뒤편 2008.4.5)



## 공주 사람, 이결재 씨



나 태 주

시인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충남 시인협회 회장

때때로 나 한 개인은 나 한 개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대표하고 내 고장 사람들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바깥 사람들이 공주란 고장을 바라보고 공주사람들을 떠올릴 때도 그건 그럴 것이다. 흔히들 요즘의 공주, 또는 공주사람이라고 하면 박씨 성을 가진 세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젊은 운동선수로서의 박찬호와 박세리. 그리고 “제비 몰려 나간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로 각인된 중고제 우리 소리의 명인 박동진 용이 그 분이다. 그래서 공주 사람들 자신도 쓰리 박이란 용어를 자주 들먹인다. 한번인가는 KBS 네티즌칼럼에 공주에 사는 어떤 분이 “세리와 찬호가 러브호텔로”란 제목을 달아 글을 써 올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이 클릭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공주시의 강북지역 신시가지인 신관동에 ‘세리파크’란 이름과 ‘찬호모텔’이란 이름으로(‘찬호모텔’은 그 뒤 가족 층의 향의로 ‘찬오모텔’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들었다) 된 숙박시설을 꼬집어서 쓴 글인데 제목만 보고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얘기가.

그러나 그건 꼭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 사람 박씨 성 가진 사람만이 공주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공주에는 그 분들이나 그 분들의 업적이나 특성 못지 않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허지만 사람마다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 충분히 그 명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저런 사항을 감안하면서 나는 몇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대라면 누구를 댈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 이 사람이 참으로 공주 사람이라고 댈 수 있으려면 우선 공주의 산천과 닭

은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모습이 그래야 한다. 그리고 현재도 그 인물이 공주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특히 공주 사람들이 다같이 그렇다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한 한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 나더러 말하라면 이걸재란 이름을 낸다.

이걸재 씨는 마스크에 많이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다. 외모가 출중하게 잘 생긴 것도 아니다. 그저 촌티가 나는 한 남정네일 뿐이다. 본인에겐 좀 마음 아픈 얘기겠지만 이걸재 씨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에 불과하다. 최근 유명인사, 공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 이걸재 씨의 경우와는 너무나 판이하다. 솔직 담백함이 트레이드마크다 싶기도 한 이걸재 씨는 자기 학력에 대해서도 결코 숨김이 없다. 그야말로 당당하다. 이걸재 씨의 당당함은 학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가정 이야기, 유년 시절의 성장기, 가난 이야기, 청년시절 고생한 이야기, 부모나 친지들 이야기에 이르러서도 걸거침이 없다. 자유인이라 그럴까. 가릴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걸재 씨는 하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날마다 동동거리며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우선 이걸재 씨는 공무원이다. 오래 동안 공주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에 관한 업무를 보다가 잠시 자기 고향인 의당면사무소 부면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다시 시청 관할의 문예회관 공연담당팀장으로 들어와 있다. 뿐더러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실감나는 체험담을 들고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나 문화예술진흥원교육원 같은 기관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입담 좋은 강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걸재 씨는 글 쓰는 사람이다. 나하고도 실은 글 쓰는 사람으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된 것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린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그다. 동네에서 빌려볼 수 있는 책들을 모두 읽고 나서 더 많은 책을 읽기 위해 한동안 겨울철이면 공주문화원 도서실에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그다. 한번인가는 소설가 황순원 선생을 찾아갔다가 “원고지로 자네 키만큼 높이가 되도록 소설을 쓴 다음 다시

찾아 오라”는 지침의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이걸재 씨의 문학은 사람이 그러하듯 편협하지가 않다. 그가 그동안 쓴 글로는 시가 있는가 하면 소설도 있고 희곡작품도 있다. (시집 『푸념』1·2·3권, 소설 『궁핍』, 희곡 『개관』, 『황산벌』, 『송산리 고분군 도굴기』 등)

뿐더러 이걸재 씨는 타고난 소리꾼이기도 하다. 술도 마시지 않고 어떤 잡기도 모르는 그인데 소리판에 서기만 하면 어찌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신명이 좋다. 때로 간드러지기도 하고 청승맞기도 하다. 아마도 이걸재 씨는 소리를 위해 누구한테 선생을 정하고 특별히 사사 받은 적은 없지 싶다. 그야말로 그는 천성적인 소리꾼이다. 실은 돌아가신 부친께서 탁월한 소리꾼이었다 한다. 어린 시절 부친이 부르시는 「상여소리」나 「집터 다지는 소리」나 「단가」에 젖어서 자랐다 한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는 부친이 소리를 하는 것이 싫었다 한다. 그래서 숨어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는데 부친의 영향은 어쩔 수 없었던지 초등학교에 들어가 1학년 때 음악시간에 「아리랑」을 목청껏 불렀다가 담임교사한테 야단을 맞은 일도 있다고 그러다. 그리고 보면 소리꾼으로서의 그에게 전혀 모델이 없었던 건 아니다. 돌아간 부친이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이걸재 씨는 이 소리와 연결 지어 부친과의 애달픈 추억을 지금도 소중히 그 가슴에 품고 있다. 부친이 뇌졸중으로 병을 얻어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실 무렵의 어느 날 어린 아들인 이걸재 씨를 부르시더라. 그러면서 연필과 공책을 준비시키고 거기다 당신이 부르는 노랫말을 적으라 하셨다는 것이다. 부친은 단가 가운데서도 「만고강산」이나 「부귀공명가」, 「목련가」를 잘 부르셨는데 그 날은 「목련가」를 부르시다가 목이 메어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가사를 잊었노라 짐짓 말씀하면서 이제는 가보라 하시더라. 그 때 아버지가 눈물을 지으시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재 씨는 소년이 된다. 문득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다. 소년 이걸재 씨. 이걸재 씨의 마음 속엔 아직도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라는 것과 어른에게 공경 잘할 것과 너 자신을 값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평생동안 교훈을 주신 아버지. 그가 열일곱이 될 때까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불러다 앉히고 잘못된 내용을 자복(自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이결재 씨

服)을 받은 뒤, 나이 수만쯤 좋아리를 치셨다는 어머니. 오늘날 이결재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으로는 이러한 부모님의 교훈의 힘도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이결재 씨의 삶은 그 개인의 삶만은 아니다. 동시에 그것은 어머니의 삶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이기도 한 것이다.

하므로, 이결재 씨의 삶은 개인의 삶이면서 가족의 삶이고 집단의 사람이다. 여기에 공주사람으로서의 이결재 씨의 대표성이 의미를 지닌다. 이결재 씨는 고장의 문화 활동면에 있어서도 마당발이다. 일찍이 충남 문인협회 사무국장, 공주문인협회 부회장이었고 현재는 <예인촌>(예술을 사랑하는 공주사람들)이란 종합 예술단체의 대표이고 고향인 의당면 주민들로만 구성된 민속모임인 <논두렁 발두렁>의 후원자 겸 지도자이다. 한동안은 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장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으며 현재는 공주문화원 감사이기도 하다. 이만하면 진정 이결재 씨가 공주 사람다운 공주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결재 씨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정리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 “살아서 꿈이 없고 세상이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은 그가 지닌 바 장점 이든 단점이든 한 가지 특성만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기 쉽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결재 씨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러하지 아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일면, 문인으로서의 일면, 소리꾼이나 문화계 인물로서의 면모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이결재 씨인 것이다. 하므로 이결재란 인물은 결국 다면성을 지닌 인물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공주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찾아서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자 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여성봉사단체인 “공주여성의용소방대”를 소개합니다.

##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공주여성의용소방대



이춘옥 대장

119 안전센터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전에는 파출소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119 안전센터라고 부른답니다.  
불이 났다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불자동차를 보면서 위험도 무릅쓰고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그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 그 중에서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소개합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살펴보면 민간 소방자원의 활용을 위한 지역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역할과 활동범위를 넓히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공주 의용소방대의 설립은 1985년에 이루어졌으며, 50여명의 대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춘옥님은 오랫동안 대원으로서, 대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남편 때문에 아무 모임도 못하고 있던 차에 놀러온 친구가 의용소방대를 소개하면서 함께 일해보자는 권유에, 듣고 있던 남편이 쉽게 허락을 해주어서 지금껏 열심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많은 봉사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의용소방대 자연정화 활동을 하였는데, 80여명의 대원들이 공주 월성산(봉화대)에 이르는 산길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산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화기취급행위 및 화기 소지금지를 계도하는 등 보람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관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봉황초등학교의 세 명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과, 용기를 갖도록 독려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각 월별 교육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긍지를 갖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장비 사용법, 응급처치법, 구조·구난현장 활동지원 요청,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화재진압 요령 및 활동지원 요령 이외에도 농촌 일손돕기, 불조심 홍보 캠페인, 산불진압 요령 등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회원간의 돈독한 친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은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늘 산불조심.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작은 지식을 익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화이팅!!!

글김춘원 명예기자



불조심 홍보 캠페인



공주소방서장 이취임식



공주여성의용소방대원



산불조심 홍보하고 있는 공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시범

## 무령왕 이야기(2)

### 3. 무령왕, 왕이 안 되고 된 이유



윤 용 혁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

한편 2001년 1월 진서정의 무령왕 실행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문경현 선생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였던 서곡 정은 고고학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정황 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의견에 대체적인 동의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02년 공주대학교에서의 무령왕릉 심포지엄에서 이를 정식으로 거론하면서, 무령왕 출생지로서 가당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무령왕의 가당도 출생설을 적극 긍정하는 입장으로 이재석을 들 수 있다. 그는 곤지의 도일 문제를 검토하는 논문에서 무령왕 출생담을 의심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를 ‘근거 없는 추정’으로 간주하고, 섬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또 主島라는 별명까지 소개되고 있는 점에서 “이 출생담이 완전 조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령왕의 출생전승은 “모두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이유로서 첫째, 『일본서기』의 관련 자료가 백제계 기록인 『백제신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둘째, 전승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에서 특별한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곤지의 도일 연대와 무령왕의 출생 연대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무령왕의 출생은 『일본서기』에 461년으로 되어 있지만, 461년인지 아니면 462년인지 다소 애매한 상태에 있다. 무령왕 지식에 의하면 왕은 523년 62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를 출산과 함께 1살을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따지면 462년 출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재석은 곤지의 일본 파견을 461년이 아닌 46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령왕 발굴 이후 지금까지 무령왕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이 있다. 무령왕 지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462년 생이라 해야 할 것 같지만, 혹 백제 당시의 계산법이 요즘 滿 나 이 계산처럼 하는 것이었다면 『일본서기』의 461년이 맞기 때문이다.

무령왕은 출산 이후 곧 귀국하여 백제의 험난한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고구려에 의한 한성의 함락과 개로왕의 죽음, 그리고 웅진 천도 등이 그것이다. 462년 출생설을 취할 경우 웅진으로 천도하는 475년에 그는 14세의 나이였다. 문주왕이 해씨의 정변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아들 삼근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옹립되었지만, 삼근왕은 불과 3년만에 사망하고 만다. 479년, 그 때 무령왕의 나이 18세이다. 삼근왕이 죽자 진씨 세력은 아직 어린 나이인 곤지의 제2자 牟大를 일본으로부터 불러들여 왕위에 올렸다. 무령왕은 정치의 중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동성왕의 정치 상황으로 보아 무령왕은 그의 즉위 이전까지 권력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무령왕은 개로왕의 아들이며 매우 훌륭한 외모와 체격의 소유자였다. 왕실의 주변에 줄곧 머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근왕 사후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일본에 살고 있던 동생 모대(동성왕)가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이도학은 그것이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진씨와 같은 귀족들의 계획적 책략이었다고 보았다. 즉 유년왕의 즉위에 의한 왕권약화에 편승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마보다는 어리고 국내 정세에 어두운 모대가 ‘관리’에 용이하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노중국은 모대가 일본에 장기 체류하여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 하였다. 연민수는 백제의 친왜국책, 왜국 중시의 외교 노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해구 토벌과정에서 실권을 장악한 진씨 귀족세력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왜왕에 의한 책봉, 혹은 왜에 세력을 확보한 백제귀족 목협만치의 도움설과 같은 주장이 오래 전에 나온 적이 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정재윤은 동성왕의 즉위 배후에 이 같은 왜(河內)에서의 곤지계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다. 동성왕의 즉위가 반드시 어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떻게 종잡기 어려운 사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기동 교수는 아에 “어쨌든 무령왕을 배제한 채 모대가

즉위하게 된 사정은 잘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젊은 시절 무령왕은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이에 대해서 가장 흥미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 것은 이도학이다. 이도학 교수는 무령왕이 동성왕 때 익산 지역에 ‘담로장’으로서 파견되어,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축적해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유명한 서동설화를 무왕 대신에 무령왕과 연결시켰다. 요는 즉위 이전의 무령왕이 중앙에 거주하며 왕권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봉되어 중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동성왕대 무령왕의 존재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였으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령왕이 지방에 파견되어 중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다는 것도 가능한 일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더욱이 동성왕의 전제적 정치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고 민심이 이반하는 시기에 무령왕이 같은 도성에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 같다.

동성왕은 재위 23년 되던 서기 500년 연말에 권신 백가에 의하여 제거되었다. 사냥을 나갔다가 폭설을 만나 고립된 한 벽촌에서의 밤이 그 틈을 주었던 것이다. 동성왕은 권신 백가의 사주를 받은 자객의 칼을 맞아 중상을 입고 얼마 후인 12월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무령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노중국 교수는 동성왕 사후 무령왕의 옹립에 대하여, 백가 세력이 동성왕 제거 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무령왕을 옹립하였을 가능성과 무령왕이 동성왕 제거의 배후 인물로서 실제 거사에 관여하였을 가능성 가운데 후자에 표를 던졌다. 만일 백가 세력이 왕을 옹립한다면 조정이 용이한 인물을 선택했을 것이며, 그렇게 보면 무령왕의 옹립이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501년 무령왕의 즉위는 거사의 배후에 무령왕 자신이 있었고, 무령왕은 민심의 이반 및 백제 지배층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이용하여 거사에 성공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하여 정재윤도 동성왕 제거의 주모자가 무령왕일 가능성이 크다고 동의하였다.

동성왕의 제거는 동성왕의 전제정치가 길어지면서 반동성왕적 공감대가 상하에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조관계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동성왕의 제거를 ‘무령왕의 주도’라고 보기보다는 귀족세력과 무령왕의 자연스러운 공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 탄천면 남산리



- 마을의 위치와 유래
- 마을의 형성과 특징
- 남산의 성씨
- 송정의 세 서당 이야기
- 남산리 입석과 계백장군의 전설
- 남산골 금광
- 남산리의 대동고사
- 남산리의 두레
- 남산리의 우물
- 남산리의 민속놀이

## 금광과 서당의 마을

## 금광과 서당의 마을



서당이 많았던 송정골. 현재의 남산2리는 일제강점기 말기와 한국전쟁 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을이다.

탄천면 남산리 위치도



## 마을의 위치와 유래

남산리는 공주시의 남쪽 논산시와 부여군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금강 이남의 공주는 계룡산 자락의 계룡면(鷄龍面)과 반포면(反浦面)이 산악 지형과 계룡면 일부와 이인면(利仁面) 탄천면(灘川面)이 논산 광석들과 연결하여 평야지대를 이루는데 남산리는 광석들과 경계를 이루는 접경에 위치한다.

마을의 지형적 특색은 야산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을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데 야산이 많아 평야지대라는 느낌이 없으면서도 산골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서 마치 작은 마을들이 야산의 산자락에 숨은 것처럼 보인다.

남산리의 동쪽은 덕지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탄천면 삼각리 서쪽은 가척리와 경계를 이루는데 화정리를 벗어나면 논산시 광석면의 넓은 들, 속칭 논산들이 펼쳐진다.

남산리에는 선사시대의 입석문화인 남산리 입석이 있고 서남생이 고개 위(上段) 강건너골과 대학골 사이의 야산에는 유적번호 공주 082-1과 082-3인 남산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금강의 연안으로 토지기구 유적지(草地區 遺蹟地)와 접해 있는 남산리 고분군은 토광묘(土壙墓)의 밀집지역으로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군이다.

이곳에는 지석(支石), 마제석검(磨製石劍), 석촉(石鏃:돌화살), 무문토기(無文土器) 등 다양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산재되어 있어서 백제 시대에는 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이 살던 곳으로 추정된다.

백제 때는 웅진권이 아닌 소부리 사비군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기에도 부여군에 속하였다. 고려조에 이르러 공주목에 속하여 조선시대에도 공주군에 속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말엽에는 공주군 곡화천면(穀禾川面) 지역으로 남산 아래 있던 골이라 하여 남산골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왕촌(旺村), 흥성리(鴻城里), 내동(內洞), 곤치동(?峙洞), 건평(乾坪)의 일부와 송정동(松亭洞), 화산리(花山里),

신흥리(新興里)와 부여군 초춘면(草春面) 세동(細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남산리라 하고 탄천면에 편입되었다. 남산리라는 이름은 이 골 전체를 이르던 옛 이름 남산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부여군과 공주시의 경계가 예민하게 그어졌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작은 마을 건평(乾坪)이다. 건평은 남산리 남단에 산자락을 의지하여 앉은 마을이며 토질이 매마른 들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 산이나 하천을 경계로 삼지 않고 신작로를 경계로 삼아 길을 사이에 두고 원편은 공주 오른편은 부여군이다.

## 마을의 형성과 특징

남산리에는 여러 개의 작은 마을들이 존재한다. 이는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작은 마을 여러 개가 동네의 북쪽 중심에 있는 장군봉과 남쪽에 있는 남산 자락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현대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서쪽 긴 산자락으로 남산리 1구의 마을이 산재해 있고 동쪽의 아늑한 분지에는 남산리 2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 마을이 아주 다른 역사를 가지고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들 자연마을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산리의 마지막 훈장 윤억중의 생전 모습

### 전통문화의 정신 속에 안정된 마을 송정골

송정골이 앉은 모습은 마치 세상에 자신의 몸을 숨긴 선비의 모습을 닮았다.

장군봉에서 흘러내린 두 개의 산줄기 중 오른쪽의 원형 산자락에 들어 있어서 논산과 부여로 이어지고 탄천면 소재지와 계룡면 소재지로 연결되는 지방도가 남산리 한복판을 가르고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지나면서도 이곳에 마을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외진 곳이다.

더구나 화정리 쪽의 들로 돌아가지 않으면 건평에서 작은 고개를 넘어가야 송정골로 들어가는데 이 길 또한 낮은 산의 날등을 S자 형으로 굽어가기 때문에 마을과 지척의 거리에서도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논산 들과 연접한 마을 앞에는 작은 산줄기가 마을을 감싸안은 듯하여 마을의 정면에

서도 산자락만 벗어나면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마을 주민들의 성향 또한 마을의 자연적인 여건을 닮았다. 1970년대까지도 한학을 가르치는 서당이 셋이나 있었던 마을이다. 또한 한민족의 근대사에 커다란 회오리바람이었던 대동아 전쟁이나 사변(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마을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있지만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을 자랑삼고 위안삼아 살아간다.

송정의 마을 양편으로는 살포들과 엄말고개골이 있는데 산이 높지 않으면서도 길쭉하게 자리 잡은 논밭 역시 남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고 농사를 짓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사람만 숨어사는 것이 아니라 농토 역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 금광으로 흥청였던 안골과 건평(남산골)

장군봉의 오른쪽 산줄기에 의지한 작은 마을들은 논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이 적어 어려움을 겪어 온 마을들이다.

남산, 건평, 안골, 뽕박골, 홍성골, 부처당이, 큰맘골, 창고말(아래창고), 표수골, 두능골 등 무려 열 개의 작은 마을이 있었고 지금도 남산, 건평, 안골, 뽕박골 등의 마을이 남아 있는데 모두가 논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영향은 동네가 번성하지 못하고 마치 외딴 터에 몇몇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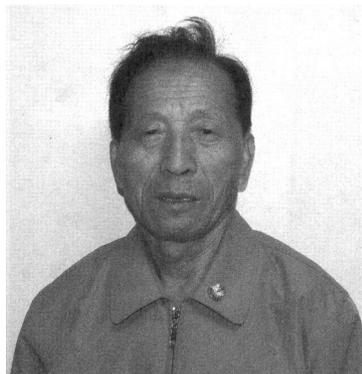
이 붙어사는 모습이었으며 안골을 제외하고는 마을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땅에서 금(金)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초엽인 191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금을 캐기 시작하였고 갑작스러운 금광의 출현은 살아가기 힘든 농업 환경의 어려움을 단숨에 바꾸어 인동의 사람들이 금광에 취직을 하게 되고 주막거리가 번성하면서 남들이 어렵게 넘겨야 했던 일제 강점기 동안이 오히려 살기 좋은 세월로 바뀌어 버렸다.

흥미로운 것은 장군봉에서 내린 두 개의 산줄기 중 오른쪽 줄기에서만 금이 생산되고 서당골로 유명한 송정 뒷산, 즉 장군봉의 왼쪽 산줄기에서는 단 한 곳도 금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송정은 예전의 어렵던 농촌의 실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에 이르렀고 남산리 1구에 해당하는 열 개의 자연마을은 모두 금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형태로 변했다. 농사환경이 불안하여 송정을 부러워했던 남산골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서러움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송정골에서는 송장만 치운다’고 가난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스스로없이 했지만 송정골 사람들은 어려워도 금광에 취업하기를



윤석형 남산1리 노인회장

꺼려했다 하니 두 마을의 성향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할 것이다.

#### 양계의 마을 남산

장군봉 아래 마을이 남산이다. 마을 전체를 내려보는 형상으로 앉아 있는 장군봉은 위엄이 있고 산 아래 마주앉은 남산은 선비를 닮았다 한다.

남산도 다른 마을처럼 금광의 영향을 받아 번성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 금광이 쇠퇴하면서 안말이나 건평보다 빨리 불황이 찾아왔다.

당초 가난한 마을이었으면 모르지만 오랫동안 넉넉하게 살아온 마을 사람들은 한꺼번에 찾아온 불황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금광의 대안으로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양계사업이다.

현재는 온 마을이 양계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업화된 대규모의 양계장이 즐비한데 이 마을에서 양계를

대규모로 처음 시작한 사람은 현재의 노인회장인 윤서형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산리에는 옛 지명으로 '닭모래이'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 마을의 양지와 음지를 나누어 양달 박씨 음달 유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양달의 박씨가 매우 번성하여 집집마다 부자 아닌 사람이 없었다 한다. 끼니때가 되면 박씨네 여러 집에서 매일 시냇물에서 쌀을 씻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냇물이 원통 뜨물로 가득차 인근 마을의 모든 닭들이 때가 되면 냇물에 모여들었다. 닭이 모여드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박씨네는 쌀을 씻던 시냇가 인근을 닭이 모여드는 모퉁이라는 뜻으로 '닭모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닭의 습성 중에서 먹이통 속에서도 발로 먹이를 헤집는 경박한 짐승이라 해서 지명에 이용되는 빈도가 낮은데, 닭모래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현재의

양계산업단지화가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산의 작은 마을들은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편안한 서당골 송정과 양계사업이 기업화되어가고 있는 남산이, 그리고 금광이 운영될 때 조성된 주막거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평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남산리의 성씨

남산리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씨족으로는 문안 유씨와 경주 김씨 그리고 밀양 박씨를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오랜 성씨는 문안 유씨로 이 마을에 들어와 15대를 이어 왔으며 밀양 박씨가 11대, 경주 김씨가 9대를 이어왔다.

양달의 유씨 음달의 박씨라는 말이 회자되었을 만큼 양성씨(兩姓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경주 김씨



남산의 대규모 양계농장의 모습

문안 유씨 묘역에 있는 동자석, 정자, 비석들의 모습



가 들어오고 파평 윤씨가 들어왔으며 금광 발견 이후 외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모여들면서 각성(各姓)반이가 되었다는 것이 마을 노인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 마을로 이사를 온 문안 유씨는 충순위 유송(忠順衛 柳松)이며 유송의 아버지는 당초 청양군 목면에서 살았다 한다. 충순위의 아버지가 고을 원을 지냈는데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조용한 곳에 살아야 한다 하여 이 마을로 이주했다 한다. 충순위 유송의 묘는 아직도 이 마을 남산 고분군의 상단에 문안 유씨 종중 묘역의 상단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참으로 애석한 점이 있다. 당초 충순위의 산소에는 아주 예술성이 높은 문신석(文臣石)과

동자석(童子石)이 있었다. 묘의 앞 중앙에는 비석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제단석은 특이할 것이 없으나 양편의 문신석이 참으로 서민적이며 순박한 모습이다. 더구나 동자석은 크기가 50cm 정도의 아담한 모습에 동자의 얼굴이 매우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도굴꾼들에게 도적질을 당해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문신석과 동자석의 모형을 짐작하게 하는 것들은 충순위의 아들과 손자의 묘에 서있는 것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자석 중에서는 걸작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충순위의 묘는 2005년에 보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성제원 선생

나라를 至極히 사랑했던 내 고장의 先賢

# 性理學者 성 제 원 선생

成 悌 元

(1504~1559)

조선 明宗 때의 학자, 자는 자경(子敬), 호는 동주(東洲), 본관은 창녕(昌寧), 장흥부사(長興府使) 성몽선(成夢宣)의 아들로 공주 달전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5대조 성석용(成石琿)은 조선조에 벼슬이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숙(文肅), 호는 회곡(檜谷)이다. 고조 성개(成概)는 호가 수헌(睡軒)이며, 벼슬이 직제학(直提學),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이르렀으며, 문장이 뛰어나 위공(魏公), 십사소(十四疏)를 써서 어전(御前)에 올렸다. 증조 성희(成熹)는 호가 인재(仁齋)이며 일찍부터 스승으로 삼을만한 친구들과 더불어 놀기를 좋아하여 학식이 높고 고명하여 단종조(端宗朝)에 교리를 역임하였다. 할아버지 성담년(成聃年)의 호는 정재이며, 성품이 곧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 성몽선(成夢仙)의 호는 강호산인(江湖散人)이며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섬기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어 효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선생은 어릴때부터 영리하여 열네살이 되자 곧 학문에 뜻을 두더니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당고(黨綱) - 후한 때 당나라 사람들이 당한 화를 말함 - 의 화가 다시 세상에 일어났나 보다』라고

하며 세상을 도피할 뜻을 가졌다. 열일곱살 때 도학을 전수받기 위하여 유서봉(柳西峯) 문하에서 배우기를 청하니 유공(柳公)은 선생이 나이 어리고 성실치 못한 것으로 의심하여 거절하였으나 열 번을 찾아가 간청한 나머지 비로소 허락을 받았다. 그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며 학문에 열중한 선생은 의지와 기개가 남다르고 배움이 깊고 넓어 성리학에 관한 학문의 一家를 이루게 되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급하자 선생은 낮에는 눕거나 쉬지 않고, 밤에는 자지 않고 수개월 동안 정성으로 보살펴드렸으나 끝내 별세하자 예를 다하여 모셨으며 그 뒤 집과 전답을 과부가 된 누이에게 넘겨주고 공주 先塋 아래에 초가집을 짓고 집 뒤에 망묘대를 쌓은 채 아침저녁으로 參拜를 하였다. 선생은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걸러도 평온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빛이 없었으며 어진 선비와 교분을 나누었으며 모든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 선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봄바람에 흐르는 물과 같은 멋이 있다고 하였으며 혹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신선의 기질이 있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숨은 학자로서 선생의 인품을 알고 특별히 벼슬을 주어 군자감주부(軍資



성제원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충현서원



충북 보은에 있는 상현서원

監主簿)에 임명하니 실로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얼마 뒤 보은현감(報恩懸監)이 된 선생은 懸民의 어려움을 살피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선정을 펼쳐 임기만료로 떠나게 되자 현민들은 울부짖으며 길을 막고 선생을 에워싸 다시 현으로 돌아왔다. 현이 속리산 아래에 있으므로 여가에 차마와 종복을 거절하고 報恩懸山中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지내니 선비들이 감사에게 글을 올려 선생이 어질게 백성을 다스리므로 살기가 고루 좋아졌으며, 또한 서원을 지어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케 한 사실을 알리니 감사는 조정에 청하여 五經과 四書を 사사받게 하였다.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선생이 옛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현의 인사들이 선생을 떠난 뒤 더더욱 애틀한 그리움이 간절해 사당을 세우고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으며 높은 선정을 기리기 위해 책자를 만들어 후대에 전수하였다.

선생께서 일찍이 산사에서 글을 읽을 때 스님과 더불어 15일간을 잠 안자는 것을 겨루기로 하였다. 열사흘이 되던 밤에 스님이 앓은 채 졸았으나 선생은 약속한 날까지 정신과 풍채가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선생이 서원을 지날 때 그 고을 首領이 한 기려를 명하여 수행케 하였다.

명산을 유람하며 몇 달간을 기녀와 기거하였으나 기녀의 몸을 범하지 않았다. 기녀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모두가 경탄을 하였고, 여기서 선생의 선비정신과 학

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선생은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을 뿐 아니라, 서부(西阜), 규암(圭菴)과 기거를 함께하며 講學을 하니 당시 그곳을 지나는 사람 모두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三賢의 마을이라 일컬었으며 조남명, 이토정, 서화담까지 찾아와 선생이 이들과 책상을 마주하고 연일 밤 대화를 나누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동고(東阜) 이상국(李相國)은 “그 당시에 응당 德 있는 별이 하늘에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찬탄해 마지 않았다.

선생은 시에도 능해 한수를 소개하면

手拾松花慰午飢(수습송화위오기)  
 碧天閒望暮雲遲(벽전한망모운지)  
 滿庭產影人來少(만정산영인래소)  
 惟有山禽語碧枝(유유산금어벽지)  
 손수 송화 주어 잠시 요기 하고서,  
 푸른하늘 느긋한 구름 우두커니 바라보네.  
 뜰에 짝 찬 산그림자 찾아오는 사람 적은데  
 오로지 산새만이 푸른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누나.

선생은 1559년 9월 18일 공주 달전(현재는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마을에서 향년 54세로 작고 하였으며, 공주의 충현서원(忠賢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창녕의 물계서원(物溪書院)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 생활요가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

요가 주간반 김 용 진



삶의 질 향상과 웰빙 바람으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요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한 무렵에 퇴직한 유준화 씨의 권유로 공주문화원의 요가 주간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명의 어머니 회원 속에 남자 회원이 2명이기에 조금은 쑥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시간도 있었지만, 사랑과 정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회원님들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안정시키고 트러진 골격을 바르게 정상화 시키며 근육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시리고 아파온 오십견을 한방에 날려준 요가를 접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을 바르게 짚어주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정윤경 선생님과 요가반 강좌를 개설해준 공주문화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유연하고 아름다운 백제왕비의 모습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우덕 어머니 회원님들 너무도 어렵고 힘든 나비자세와 박쥐자세, 복근, 팔약근력 자세를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도 열심히 잘하시는지 어머니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요가를 하면 좋은 점은 첫째, 자기 마음과 몸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줍니다. 둘째, 복식호흡으로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므로 정신이 통제되어 몸이 안정됩니다. 셋째, 여러 가지 요가 자세를 통하여 척추와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 육체의 기능이 향상되어 몸의 순환이 원활하여 집니다. 넷째, 긴장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도와 몸에 휴식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원기 있는 삶을 선물합니다.

구구팔팔삼이사(9988324) 어느 친구에게 들은 말입니다.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3일 앓고 2일만에 4망하는 것이랍니다. 팔팔하게 살고 싶은 분들, 균형잡힌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 나의 몸은 항상 괴롭게 하고 마음은 항상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학적이고 조화롭게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요가를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하나 되는 울림



풍물 중급반 강 미 화

히터를 틀어 놓으시고, 방석을 깔아 놓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맞아 주시는 어르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 앞에 인사를 드리며 나의 마음과 생각, 생활과 걱정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는다. 오늘은 특별히 반가운 분이 나오셨다. 자제분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는 바람에 마음만 이곳에 놓으시고 몸은 아이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참으로 오랜 만인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열심히 장구채를 잡고 연습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말이다.

문화원 풍물패 중급반인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웃다리 사물놀이를 신명나게 올린다. 썰과리, 장고, 북, 징의 네 가지 악기가 어울려 레퍼토리를 만들어 내며 연주하는 것이다. 사물의 리듬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보다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민족 장단의 극단적인 아름다움과 신명을 느끼게 하는 놀이이다. 가장 정점인 휘모리를 연주할 때면 다들 힘이 들어서 이마에 땀에 송글송글 맺힌다. 전력질주하는 단거리 선수처럼 있는 힘을 다해 연주하다 보면 몸이 신명에 겨워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된다. 악기에 자기를 내맡기어 스스로 빠져들어 하나의 완성된 곡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다.

풍물은 내고, 달고, 맷고, 푼다고 하여 우리네 인생사가 모두 담겨있다. 상쇠의 썰가리 소리를 필두로 하여 장구와 북이 매기고 받기도 하고, 썰가리 끼리도 상쇠와 부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 받으며 연주한다. 어느 악기 하나가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울림의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악기들이 제각각 자기의 몫을 할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다.

우리 중급반 풍물패도 역시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다. 특히나 다른 회원들의 일을 내일처럼 걱정하며 돕는다. 요즘은 어르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모두들 한마음으로 거뜨하게 쾌유하심을 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신명나는 울림을 계속하길 희망한다.

한바탕 신명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돌아가는 나, 그리고 회원들! 활짝 핀 벚꽃이다. 생활 속에 돌아가 나와 그들이 이 모습 그대로를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우리의 연주가 하나가 되어 돌아가듯, 나의 가정이, 이 지역 사회가, 이 나라가 그러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동행

서예반 강 석 경



벚꽃이 흐드러지게 벌어져 눈인지 꽃인지 아름답기만 한 봄날.  
나는 월요일과 목요일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은 잃어버렸던 내 꿈을 조금씩 일깨워주는 시간들이다.

옛날에 관심만 가졌던 사군자를 직접 배우는 재미는 얼굴에서 나타나 내가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웃으신다.

내 표정이 너무 재밌다고 그런가 하면 한글, 한자를 배우는 다른 분들도 서로 경쟁자를 만들어 누가 잘한다고 질투도 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짝꿍도 정하고...

서예교실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나도 나 이 먹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본다. 그런 2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또 쉬는 시간을 가져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선생님의 서예 이야기도 듣고 화기가 묻어나는 우리 모습은 봄날의 벚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고 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문화원과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우공 이 일권 선생님께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다잡아본다.

## “땡! 해도 좋아요”

가곡반 오혜영



바람도 하늘도 요즘처럼 맑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행복하게 해주는 계절이 또 있을까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만개한 꽃송이가 우리를 반기고 키 작은 민들레, 제비꽃 같은 야생초까지도 어떻게 그 긴 겨울을 견디어 냈는지 생명의 신비로움에 또 한번 놀라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벚꽃 구경을 가자며 오랜만에 장곡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길 옆으로 터널을 이루며 활짝 만개한 벚꽃이 꽃비를 내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차를 두고 아이들 손을 잡고 꽃길을 걸으려 탄성과 장난스러움으로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왔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

옆에서 걷던 아이들도 씩씩하게 팔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저의 노래를 따라 부르더군요. 제가 가곡 교실을 다니며 바뀐 작은 일상 속의 큰 변화랍니다. 아마도 이전 같았으면 요즘 유행하는 ‘텔미’를 부르며 갔을거예요.

제가 만일 가곡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예쁜 우리의 노래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어찌면 영영 알지 못했을거예요. 매주 월요일 문화원에서 함께하는 두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답니다.

작년에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들은 어찌 그리도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시는지 마냥 신기하고 부러운 마음에 “나도 잘 할 수 있어”하고 피아노 앞에서 보지만, 혼자 집에서 연습 할때는 잘 되던 노래가 피아노 앞에만 서면 어찌 그리도 작아지기만 하는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한없이 가슴은 두방망이질 치고... 그래도 열심히 지도해주시는 너무 귀여우신(?) 교수님과 환한 웃음으로 박수를 쳐주시며 위로해주시는 선배님들을 뵈때면 마냥 행복해 진답니다.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예쁜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분들을 만나며 행복한 웃음을 마음껏 웃을수 있는 월요일이 벌써 기다려진답니다. 다음주엔 저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이광형 교수님! 우리 가곡반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화이팅!!”

## 나의 삶을 사랑하며



중국어반 홍 경 애

삶이란, 나를 편하게 하는 삶도 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지식을 지식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사랑이라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 주어진 일에 충실히,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이고 참 삶이라 알았다. 그런데 참 행복이 또 있다는 것을 실이 넘으면서 알았다. 나 자신에의 투자! 펜을 놓은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화원 중국어 반에 도전장을 냈다.

중국어 배우는 시작 첫날부터 한동한 힘들어 몸살이 났었고, 책상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지만, 오르락 내리락 길게 짧게 듣고 따라하면서 어느새 조금씩 재미를 느껴가고 있다.

한 밤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지만, 중국어로 인사하는 법, 시간 말하는 법, 나와 가족을 소개하는 법 등을 알아가는 동안은 참 행복하다.

중국어 배우 후의 나의 작은 소망은, 아직은 중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기회가 있으면 가이드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목마른 설명에 묻히지 않고 내가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을 직접 보고 찾아가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큰 소망은 자유로이 중국어를 할 수 있을 때 다시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선생님의 질문엔 머릿속이 텅빈 듯 하얗게 아무 말도 못하지만, 머릿속과 혀에 쥐가 나도록 하다보면 텅 빈듯한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

선생님과 중국어로 자유로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문화원의 우리 중국어 반 파이팅!

기초에서 단어 하나라도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하시며 밝고 맑은 소리로, 너무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그리고 공주시민을 위해 이런 기회를 마련한 문화원의 발전을 빈다.

## 가을쯤에는 오카리나 연주회를

오카리나반 전 형 광



오카리나를 배우는 봄부터 제가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목요일 저녁 시간은 비워두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지키기 힘든 일이지만 지금까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다 출장을 갔다가도 저녁 7시까지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쌍둥이 딸 둘이 다니는데 쌍둥이 딸 중에 큰 애가 학교 MT 갔다가 배운 ‘이누야샤’ 오카리나 곡을 연주했더니 다들 입을 못다물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오카리나 불기에 열중하다 보면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죄송스러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4명이 빠리리하면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고 또 다들 열중하는 터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카리나 실력은 늘어만 갔습니다. 두 애들 모두 학교 동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고, 저 또한 악보만 있으면 따라 불 정도는 되었습니다. 오카리나는 소리가 참 맑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순수한 사람이랄까요. 계절로 치면 가을 하늘같이 티없이 맑고 또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우는 분들도 가르치시는 분도 다 맑아보였습니다. 오카리나에 몰두해서 다 같이 한 호흡 한 호흡 연습하노라면 왜 그렇게 수업시간이 짧은지 불었다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저희 반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 연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다니! 잘 안돌아가는 손을 주물럭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나이 드셔서까지 순수함을 간직하고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취미를 살려 공주시에 오카리나 합주단을 만들면 좋겠다’ 라구요. 매년 가을에 발표회를 해서 오카리나를 배우려는 신입생도 모집하고 1년 동안 연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도 갖고 그래서 저는 올 가을에는 문화원에서 배우시는 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연주해 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그 말처럼 이루어 지겠죠.

오카리나 음처럼 순수하고 맑게 살고 싶은 모든 분들께 가을에는 한번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과 오카리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을하늘을 오카리나 소리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 시민화합체육대회, 신관동 '종합우승'



제8회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에서 신관동이 종합우승, 유구읍과 우성면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선수대표들이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선서하고 있다.



김학수 공주대 교수(사진 왼쪽)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준원 공주시장으로 부터 상장을 수여받고 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가 신관동이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4월 26일 공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이날 시민화합체육대회에서는 또 유구읍이 종합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우성면은 종합3위를 차지했다.

13만 공주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1만 5,000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선수단 입장, 성화점화, 종목경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녀 100m, 400m 계주를 비롯 단축마라톤, 단체 줄넘기, 씨름, 장대 묶고 달리기, 게이트볼, 바구니 공 넣기, 축구 등 8개 종목에서 각 읍면동을 대표한 선수들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시정 각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는 13만 시민의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공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신관동 주민들이 김정규 신관동 체육회장을 행가래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공주시, 제9회 응진문화상 시상식



제9회 응진문화상 수상자 심사 결과 계룡면 월암리 정주상씨 등 5명이 선정됐다.

공주시는 지난 달 말까지 추천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지역사회개발 부문 정주상(77. 남. 계룡면 월암리)

▲교육·문화부문 서성길(62. 남. 신관동 새뜸현대아파트) ▲체육·청소년 부문 이성구(60. 남. 장기면 산학리) ▲효행부문 박송길(47. 여. 신평면 대룡리) ▲특별부문에 박형만(70. 남. 미국LA) 씨를 선정했다.

### 응진문화상

정주상씨는 계룡면장, 농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농촌지도사업, 식량증산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한편 감사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선정됐다.

서성길씨는 현재 교동초등학교장으로서 39년동안 교육자로 헌신하면서 기초학력 완성, 창의력 개발에 노력하고, 원어민강사 채용을 통한 영어교육방법을 개선시켰으며, 지난해에는 혁신인증학교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교육·문화부문에 선정됐다.

또, 체육·청소년부문을 수상한 이성구씨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립, 전통놀이 체험 등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기여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등에 크게 기여했다.

박송길씨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8년 동안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극진한 병수발을 했으며, 현재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86세 시어머니를 성심성의를 다해 봉양하는 등 경로효친의 마음을 몸소 실천한 공로 효행부문의 수상자로 확정됐다.

박형만씨는 재미공주향우회장으로서 교포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남가주 서독동우회, 코리아타운번영회를 설립, 교포의 결속과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교포 2세의 교육을 위한 남가주 한국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한미동포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고향 공주의 불우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만희복지사업회를 설립 운영한 공로로 특별상부문의 수상자로 각각 확정됐다.

## 공주·부여 관광객 1,300만명 유치를 위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030년 공주·부여에 관광객 1,300만명 유치를 위한 ‘백제역사문화도시’ 청사진이 마련됐다.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4월 8일 오후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사업 내용에 따르면 ▲백제문화 창조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 ▲금강연계 공원조성 및 관광활용 사업 ▲백제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백제문화거리 조성사업 ▲백제고도경관 정비 등의 사업을 2015년까지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백제문화도시 기반조성 ▲역사·문화유산의 창조적 재생 ▲백제성이 구현되는 도시공간 조성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 어메니티(amenity) 등 30여개 사업에 2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토지 공시지가 확인해 보세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충남도내 3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안)를 4월 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에게 열람시킨 후 의견을 받는다.

이번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된 토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6.39%)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 토지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道 홈페이지(<http://chungnam.net>)에 접속하여 오른쪽에 있는 ‘토지정보(공시지가)’를 클릭한 뒤 열람할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으며,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데 전화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의견제출 토지는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고,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주시,

## 문화관광지 민자유치용 홍보팸플렛 제작

공주시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물 2,500매를 제작,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금융권 등에 배포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별도의 투자유치 설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공주시는 앞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주고, 기반 시설과 공공편의시설의 우선 설치, 공주문화관광지 중심의 관광레저 홍보정책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해주는 획기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공주문화관광지는 799,056㎡의 부지면적에 약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1996년 관광지로 지정돼 지난해 9월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받



았고,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5년간 국비·도비 등 400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공주시는 그동안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결집시킬 대규모 관광지가 없어 관광산업의 침체 일로를 겪어온 만큼, 공주시의 상징인 곰나루지역을 충남 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아래 공주문화관광지에 대한 민자유치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 공주시, '궁도체험' 관광 상품화

공주시는 오는 5월부터 민족 고유의 무예인 '국궁'을 관광 상품화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궁체험은 공주시 궁도협회 주관으로 웅진동 관풍정에서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개인, 단체 등 공주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체험참가 희망자는 공주시 관광 축제 팀이나 공주시 궁도협회에 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체험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 심대평, 공주·연기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공주·연기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고 지지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18대 공주·연기 국회의원에 자유선진당 심대평 후보가 당선됐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당선인은 공주연기 총 투표수 7만 6,475표 가운데 4만 7,937표를 얻어 63.3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심대평 당선인은 이날 “공주·연기 충청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충청인을 하나되게 하는 큰길을 선택해주셨다”며 “지역민으로 뜨거운 성원과 사랑으로 우리 충청의 미래와 운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큰힘을 얻었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 제41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구본선 공주지청장 부임

### “믿음 주는 검찰 될 것”



이동열 지청장의 후임으로 구본선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이 부임했다.

지난 3월 20일 취임식을 가졌던 구본선 지청장은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공주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구본선 공주지청장은 인천에서 출생,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공주경찰서  
제55대 조원구 서장 취임식 가져



공주경찰서에서는 4월 25일 오전 11시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조원구 경찰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조원구 경찰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백제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공주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명하고 엄정한 선거치안을 확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변평섭 원장 취임

3월 25일 오전 10시 공주시 금흥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청사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변평섭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신라문화권에 치우쳤던 역사의식이 점차 백제문화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충남을 문화강국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 공주교도소, 개청 100주년



강영길 공주교도소장이 퇴직한 교정선배 및 교정참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공주교도소(소장 강영길)가 4월 11일 개청 100주년을 맞아 교정선후배 및 교정가족을 초청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공주교도소는 일제 강점기인 1908년 4월 11일 충남 공주시 교동 3번지에 공주감옥으로 개청하여 형무소,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올해 100주년을 맞았으며 그동안 독립유공자 등 많은 우국지사들이 수

감되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사진전시회', '교정가족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 퇴직한 교정 선배 및 교정 참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역사문화연구원, 공주 금흥동에 신청사 개원 중부권 최대 수장고 마련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공주시 금흥동에 신청사를 마련, 4월 23일 개원했다.

지난 2004년 4월 설립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그동안 공주시 중동의 舊 공주박물관을 임대해 사용해 왔으나,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됨에 따라 역사문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4월 23일 공주시 금흥동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청사 개원식이 있었다.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

공주시 교동 데이콤빌딩 1층에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를 마련, 본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도내 동남부권 9개 시·군의 2,508개 업체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민영동)는 4월 1일 박한규 道경제통상실장, 민형동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한평용 충남기업인연합회장, 박공규 충남도의원, 기업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개소식을 가졌다.



남부지소는 앞으로 ▲道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기업용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찾아가는 기업애로 종합상담실 운영 ▲자체 교육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및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교육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881-54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립공주박물관 무료 관람

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공주박물관이 무료개방된다. 지난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14개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주박물관도 무료관람이 가능하게 됐다.



무료관람객은 매표소에서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야하며 30명 이상의 초·중·고학생 단체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 공주 무령왕릉 관광객 천만명 돌파

공주 무령왕릉이 1,000만 관광시대를 열었다. 공주시 문화재관리소는 지난 1971년 7월 5일 무령왕릉 발견 이후 무령왕릉을 찾아온 1,000만 번째 손님을 맞이했다.

공주시 문화재관리소는 4월 22일 오후 1시에 송산리고분군에서 1,000만 번째 손님인 일본 나라현 와키야마고 2학년 신케 헤이지군에게 축하 꽃다발과 함께 금제관을 선물로 증정했다.

신케 헤이지군에게는 평생 동안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석장리박물관 등을 무료입장할 수 있는 혜택과 공주시 사이버 시민증을 부여받아 사이버 시민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 이기형 공주대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이기형 교수(교양과정)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IBC에서 발간하는 '2008년도 21세기의 2000명 탁월한 과학자' (Outstanding Scientists 2008/2009)에 선정됐다. 이기형 교수는 미생물로부터 신기능 생물소재탐색, 환경미생물의 메타게놈연구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논문발표 업적을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에서 발행하는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10th Edition, 2008-2009)에 이어 2대 세계적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 5월 24일 시장기타기 직장·단체배구대회 개최

제13회 공주시장기타기 직장·단체(클럽) 배구대회가 오는 5월 24일 백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공주시배구협회가 주최하고, 공주시체육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공주 지역의 배구 발전과 동호인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9인제 예선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경기방법은 직장부, 단체(클럽)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올해 3월 1일 현재 공주시 직장, 단체에 소속된 자, 동일 읍면 지역 초, 중등학교는 연합팀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시청 회계과, 공주교대 대학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회계과(☎010-4130-4435), 공주교대 대학원(☎011-457-6782)로 문의하면 된다.



## 충남역사박물관, 교육실 무료 대여

역사박물관 전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변평섭)은 지역 문화단체 및 주민들에게 교육과 전시기회를 제공하고자 역사박물관에 있는 교육실습실과 기획전시실을 무료로 대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 8일부터 첫 수업을 실시한 공주 춘추서당(훈장: 송석준 공주대 교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춘추서당은 지난 1999년 7월 5일 '새 교육공동체 공주시민모임'(당시 회장 권정안 공주대 한문교육과 교수)에서 시작한 교육모임으로 수년간 한문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을 교사진들로 구성하여 6개의 '춘추서당 효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주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통서당식으로 기초한문을 익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6개 효도교실 학생들이 모여 한문의 우수 경연대회도 시행한다.

현재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송석준 교수가 훈장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주부교사 40 여명이 송 교수한테 천자문과 사자소학, 동몽선습, 계몽편추구 등의 전통한문을 배워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6개의 효도교실(공주대 신관캠퍼스, 공주대 옥룡캠퍼스, 중학동, 옥룡동, 산성동, 웅진동, 이인면사무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제 1회 장학증서 수여식

135명의 우수장학생, 이 통장 자녀 및 저소득자녀 장학생에게 1억 2400만원 지급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는 4월 2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 김상학 공주교육장, 김태룡, 고광철 시의회 의원 등 장학회임원과 장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창립한 후 처음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 탄천 염명후 씨, 마을노인에게 한글교육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염명후(56세)씨는 올해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을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분강리 마을회관에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마을 노인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마을노인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염명후씨는 현재 탄천면 분강리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이제홍 이장의 처로서 집안 살림은 물론 마을 발전을 위해 이장을 보필하는 등 숨은 조력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해오고 있다.



## (주)진로, 지역사회 후원 '훈훈'

(주)진로는 지난 3월 26일 공주 시민의 축제 한마당 큰 잔치인 제8회 공주시민화합체육대회에 각 읍·면·동에 참이슬 170박스 시가 110만원을 후원해 대회의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읍·면·동간 화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공주시와 함께 제1회 산성재래시장 살리기 노래자랑에 1억원 상당의 상품권·경품을 후원, 대한민국 대표 소주 위상에 걸맞게 본사는 물론 각 지역 영업 지점별로 사회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스마일어게인(Smile Again) 캠페인과 대전·충청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쌀 지원,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등 후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공주시인명구조대 등 금강정화 활동 펼쳐

공주시인명구조대의 최영동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 23일 금강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대대적인 하천정화활동을 펼쳤다.

비가 내리는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 펼쳐진 이날 하천정화활동에는 신관동자율방범대, 市의용소방대, 보령잠수협회를 비롯 금성여고, 공주중, 영명중, 봉황중, 장기중학교 등 1,000여명이 市인명구조대원들과 뜻을 같이 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금강 정화활동은 수중정화 활동 팀과 강변정화 활동 팀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끼니도 거른 채 오후 1시까지 계속돼 총 3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공주시인명구조대를 비롯 1,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금강에서 대대적인 하천정화활동을 펼쳤다.



오른쪽-공주시인명구조대 대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 수자원공사, 농촌일손돕기 나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 사회공헌활동 ‘사랑배달원’ 동아리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는 4월 29일 1社1村 자매결연을 체결한 공주시 의당면 용암마을에서 바쁜 농사철을 맞아 일손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농번기 모내기 등으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일손이 모자란 농촌마을을 돕기 위해 부서 직원 전체가 우리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모내기 모판 만들기, 볍씨 뿌리기에 참여했으며 인근 하천인 용두천을 찾아 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했다.



## 리더스봉사단, 농촌 일손 돕기 나서

공주시 리더스(Leaders)봉사단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4월 28일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끝낸 20여명의 회원들은 의당면 청룡리 김흥기 노인의 모판작업장으로 이동해 기계설치 및 황토 흙 운반 등을 도왔다.



리더스(Leaders)봉사단원들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 도시락 나눔 봉사 펼쳐

리더스봉사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에게 전해주고 있다. 월요일인 3월 31일에도 진옥남 처장을 비롯한 단원들은 의당면 유계리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일임(86) 할머니 등 독거노인들을 찾아 사랑 가득한 도시락 전달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리더스봉사단원들이 독거노인들을 찾아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 독거노인 이·미용 봉사

공주시리더스봉사단이 4월 21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전달을 겸해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매주 월요일 관내 독거노인 25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리더스봉사단은 머리손질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 독거노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 건강·즐거움은 담고 쓰레기는 수거하고

리더스봉사단은 4. 4(금) 09:00 - 17:00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 마곡사 경내 및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자연보호 캠페인, 환경보전을 위해 리더스봉사단이 淸明을 맞이하여 태화산 마곡사를 찾았다. 「자연은 네 것과 내 것이 없다. 모두가 우리의 것이요, 공유재산입니다」, 「설마한 날 화재 있고 조심한 날 화재 없다」, 「휴지 줍는 작은 정성 후손 위한 값진 유산」 등의 플랜카드를 적절한 장소에 내걸고 자연보호활동 및 캠페인을 가졌다.



## 이웃사랑 실천한다

사단법인 신진복지회(이사장 김대수)가 3월 21일 신진가든예식장에서 초등학생 30명에게 각 300,000원씩 복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신진복지회 복지금 전달식에는 김영만 농협중앙회공주시지부장, 양대회 국민은행 지점장, 박기영 안경나라 대표, 소병찬 공주청년회의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 아동들을 격려했다.



## 사랑의 교복 나누기 전달식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를 4월 29일 시청회의실에서 가졌다. 이준원 공주시장과 강임금 공주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강은지 공주여중외 37명의 학생에게 교복을 전달했다.



## 마곡초등학교 학생들, 효교육 실천

마곡초등학교(교장 임장빈)는 5월 6일 운암2구 노인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의 효교육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교어린이회에서 준비한 선품기를 노인회에 기증하였고 이날 무학년 형제 자매단의 만형, 만언니들과 마곡초 바르게살기 동아리인 '마곡참살이'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마당청소와 방청소를 실시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권재덕 할아버지를 학교에 초청 1일 명예교사로 학교 역사 알기와 학교사랑에 대해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매결연 후 기념촬영하는  
마곡초등학교 학생들



### 제11회 계룡산 산신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계룡면 신원사 일원에서 개최



공주시 계룡산 산신제 보존회에서 주최하고 계룡산 산신제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1998년 시작 이래 1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행사로 유·불·무가식 산신제와 다양한 공연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4월 19일 오전 10시 신원사에서 불가식 산신제를 시작으로 계룡산등반, 유가식 산신제, 웅진단 수신제, 무가식 산신제 등 다양한 무대공연 행사와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 제4회 마곡사 신록축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마곡사 입구 일대에서

에로부터 '춘 마곡 秋 감사'라고 불리는 천년고찰 마곡사에서 아름다운 신록과 심산유곡의 봄꽃이 어우러진 제4회 마곡사 신록축제가 개최됐다.

4월 21일~22일 2일간 마곡사 입구 주차장 일대에서 마곡사신록축제추진회와 지역주민이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축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진각 스님)가 불교형식의 문화를 가미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무대공연과 체험거리로 진행, 참석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내용은 4월21일 오후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네팔왕림무용단 초청공연, 태화산 산신제, 영산재, 불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공연행사와 사경대회, 포행(명상)수행, 부처님그리기, 연등만들기 소원달기, 사찰다도 강연, 연꽃사진전, 솟대만들기 및 장승제, 템플스테이 등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제공했다.





## 계룡산동학사 숙모전 춘향대제 ‘봉행’

매년 단종 탄신일에 사육신 등 충신열사들의 넋 기려

4월 20일 오전 계룡산 동학사 경내 초헌각지에서 단종과 단종복위를 꾀하던 사육신 등 충신열사들의 넋을 기리는 춘향대제(春享大祭)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숙모회(이사장 김중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숙모전(肅慕殿) 춘향대제는 문중 후손과 탐방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신례, 강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단법인 숙모회는 매년 단종 탄신일인 음력 3월 15일과 단종 승하일인 음력 10월 24일에 맞춰 제를 올려 조상들의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 제4회 계룡산 분청사가 축제

계룡산의 자랑, 철화분청사기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 추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 '제4회 계룡산 분청사기 축제'를 개막했다.

이날 무용가 엄정자씨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도예촌 일원에서 4월 29일까지 4일간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서 '공주 국제 도자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김준성씨 등 국내작가 15명과 캐시 제퍼슨(캐나다)씨 등 5개국의 외국작가 5명이 참가해 작품을 전시하고 도자기 기법시연 및 워크숍 등을 가졌다.

주요행사로는 도예촌 작가 작품 전시, 참여작가 워크숍,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 도자기판매마당, 야외 가마 소성 체험, 작품경매행사, 국내외작가 오픈스튜디오 체험, 작품꺼내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무대가 마련됐다.



## 예술의 향기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제8회 국악어울마당 개최



비나리는 빌다의 옛 명사형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 액살을 물리치고 순조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11주년 기념 행사로 비나리의 명인 이광수 원장과 함께 하는 봄을 여는 비나리가 3월27일 공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5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CMB총청방송 김국희 MC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부 행사에서는 이광수 민족음악원장 외 7명이 비나리와 판굿을 선보였으며 2부 행사는 노종락 원장의 지휘로 서용석류 대금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산조, 김희조편 대금, 전윤허 가야금독주곡, 춘설 황병기 작 김희조편 가야금, 임정연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 김영재 작 해금, 이해선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3악장놀이, 박범훈 작 사물 이광수 원장 외 연정국악원 단원 3명이 출연했다.



### 석송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열려

4월 1일 정안면 석송리 만세득 일원에서



참가자들이 석송리 만세득 일원을 돌며 만세운동을 재연하고 있다.

제89주년 석송 3.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4월 1일 오후 정안면 석송리 만세득 일원에서 펼쳐졌다. 정안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준원 공주시장, 이금목 유족회장,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주교육대학 풍물놀이패의 풍물놀이와 연극동아리 학생들의 연극공연이 식전행사로 펼쳐진데 이어 윤석경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의 경과보고, 조윤래 정안JC 회장 기념사, 이준원 시장 축사, 기념비문 낭독, 헌화 및 분향, 3.1절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석송리 3.1만세운동 기념비에 헌화한 참가자들은 만세득 일원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만세운동을 재연, 89년 전 그날 일제의 탄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 ‘웅진성 수문병교대식’ 개막

4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공산성 체험, 활쏘기, 부조 만들기, 백제유물 발굴체험, 옥사체험, 창던지기 등 의미 있고 즐거운 체험행사가 진행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의 대표적인 상설 문화행사인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이 4월 5일 오후 2시부터 공주시 공산성 금서루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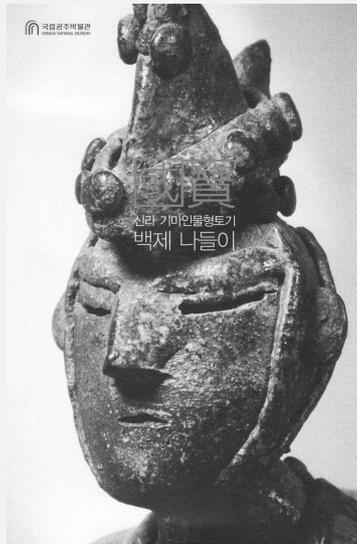
웅진문화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공주시의 후원하는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공주의 유일한 상설 문화 관광 상품이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2일 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백제 병사 복식을 입고 누구나 수문병과 호위병이 될 수 있는 각종 백제역사 체험 행사를 마련, 뜻 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이전개관 4주년 기념 국보문화재 순회전시

### 신라 기마인물형토기의 백제 나들이



초록빛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신축이전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함께하는 국보문화재 순회전 「신라 기마인물형토기의 백제 나들이」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1달간 열린다.



국제관광박람회서  
백제문화제홍보 '인기'



공주시가 지난 4월 6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2008 대구경북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백제의상체험을 실시,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시는 백제의 왕, 왕비, 장군 등 무료 의상체험행사를 갖고 즉석 사진찍기를 실시, 평일 약 500명씩, 주말 약 1,0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공주시 홍보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에는 국내외 200여 기관·단체, 400부스, 6만여 명이 관람, 성황리에 끝났다.



백제사우회 사진전 개최

백제사우회(회장 이덕섭)가 충남역사박물관에서 벚꽃축제와 함께 회원전을 개최한다. 열여덟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원전은 4월 5일부터 13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열렸으며 최돈기, 최운용, 라인준, 문형권, 강현묵, 석용현, 류석만, 김인태, 임기호, 조성일 회원들이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찍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공주박물관,  
매달 셋째주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실시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방룡)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주말 야간개장 시간대를 이용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큐레이터로부터 전공분야의 유물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이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19일 이상미 학예사의 '웅진백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특별전시유물: 기마인물형 토기', '동탁은잔의 문양', '무령왕릉의 발굴과 출토유물', '무령왕릉출토 지식의 의미', '보존처리 문화재', '특별전시 유물: 계룡산 도자기' 순으로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이 지속된다.

참가는 전시실 안내데스크에서 당일 오후 5시부터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안민자 ☎041-850-6365)



## 5, 6월 공주문예회관 행사 안내

날 짜	시 간	이 용 자	공연제목
2008년5월03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백설공주를사랑한난장이 셋팅
2008년5월04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백설공주를사랑한난장이 셋팅
2008년5월05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백설공주를사랑한난장이 공연
2008년5월07일	9:00-17:00	충남예술고등학교	국악순회연주회
2008년5월08일	9:00-17:00	대한노인회 전대규	어버이날 행사
2008년5월09일	9:00-22:00	공주영상대학	실용음악과 음악회
2008년5월10일	9:00-22:00	현대수	예인촌 공연
2008년5월14일	9:00-17:00	금성여고	금성여고 예술제
2008년5월16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제121회충남교향악단정기연주회
2008년5월17일	13:00-22:00	BBS 공주지회	음악회
2008년5월18일	9:00-17:00	장은혜	향기나는 음악회
2008년5월19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장일범의 말랑말랑 클래식
2008년5월20일	9:00-17:00	공주보건소	2008어린이흡연예방인형극
2008년5월21일	13:00-17:00	소명기획	오즈의 마법사 셋팅
2008년5월22일	9:00-12:00	소명기획	오즈의 마법사 공연
2008년5월22일	16:00-18:00	장애인복지담당	공주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셋팅
2008년5월23일	9:00-18:00	장애인복지담당	공주장애인 재활증진대회
2008년5월24일	9:00-17:00	이재황	필레니엄 슈퍼오케스트라
2008년5월25일	9:00-17:00	충청신문	중국 훈춘시 민속예술단 내한공연
2008년5월26일	9:00-17:00	박김배	가곡과 아리아디밤
2008년5월27일	13:00-22:00	박김배	가곡과 아리아디밤
2008년5월28일	9:00-17:00	요식업조합	요식업조합원 교육
2008년5월29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B보이를사랑한발레리나 셋팅
2008년5월30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B보이를사랑한발레리나 셋팅
2008년5월31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B보이를사랑한발레리나 셋팅
2008년6월01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B보이를사랑한발레리나 공연
2008년6월02일	9:00-17:00	공공시설관리소	B보이를사랑한발레리나 철수
2008년6월02일	18:00-22:00	공공시설관리소	장일범의 말랑말랑클래식
2008년6월03일	9:00-12:00	공주 보건소	공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부모교육
2008년6월04일	9:00-22:00	공공시설관리소	안숙선과 떠나는 민요여행 셋팅
2008년6월05일	9:00-22:00	공공시설관리소	안숙선과 떠나는 민요여행 공연
2008년6월06일	9:00-22:00	공공시설관리소	안숙선과 떠나는 민요여행 철수
2008년6월09일	13:00-22:00	충남음악협회	충남음악축제
2008년6월10일	9:00-17:00	공주보건소	구강보건의날 행사
2008년6월11일	9:00-12:00	대한노인회 공주시지원	노인지도자연수교육
2008년6월12일	9:00-17:00	테크노세미켄	직원교육
2008년6월13일	9:00-22:00	공공시설관리소	제122회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야간국악강습 실시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원장 노종락)에서 2008년도 제8기 야간국악강습을 실시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은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조간강습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 등 시민들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8주 과정으로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2시간씩 매주 2회 야간국악강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야금(화, 목요일)은 초급 15명, 소리(화, 목요일) 초급 10명, 사물(화, 목요일) 장구초급 15명을 4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방문접수나 인터넷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041-852-7800이나 담당 지기현017-423-7318, 또는 E-mail jigih@hanmail.net로 하면 된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초청강연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촌 농민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4월 23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농촌 농민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FTA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미

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준 협상이고, 국민 건강에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정부가 갖다가 국민에게 먹으라고 풀어준 꼴"이라고 일침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값이 싸다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협상에 임한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죄송해 한다. 양심 고백하는 공무원이 나왔으면 한다. 농산물 유통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농협이 돈놀이에 빠져서 그걸 못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힘이되는 강연을 했다.

### 백제신문 창간 1주년 기념식

백제신문 창간 1주년 기념식 및 캐리커처 전시회가 4월 16일 공주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개최돼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는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 이동섭 시의회 의장, 고광철·박병수·양준모 시의원,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이흥복 지역경제협의회장, 장원석 강북발전협의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지역유명인사 29명을 선정,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켜 그림으로 그리는 캐리커처 전시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 십년 후의 계획

유구중학교 2학년 양 소 철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가는 할아버지 댁 대문, 걸어서 1분도 채 안 걸리는 그곳을 저는 매일 오고갑니다.

소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신 할아버지는 집배원이 되셨습니다. 몇 십년 동안을 자전거를 타며 편지 배달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퇴직을 단 몇 년 남기고 그만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당시 엄마와 아빠는 좁은 방에 살고 계셨는데, 공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듯한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 가까이에 살아달라며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의 병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3급이라는 불행이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엄마에게서 들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조그마한 양봉일을 하십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는 더 이상 자전거를 타실 수 없으셨죠. 정성스레 꿀을 모으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갖다 주시는 그 얼굴, 꿀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얼굴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 2월 할아버지 생신 때에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너 결혼하려면 십 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하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나는 그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괜히 후회가 되더군요.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는 할아버지. 꿈이 많은 나는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후의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면 다리가 불편하셔서 항상 늦게 걷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조금은 화가 나서일까요? 오빠와 함께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하지 마, 그런거 따라 하면 못 써.” 라고 하셨던 할아버지. 그 때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화가 나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 걸음이 창피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없던 그때의 제가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훈내신 적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펜을 잡고 사는 사람이 되렴.” 펜을 잡고 사는 사람이라... , 처음엔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힘든 노동을 해서 벌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책상 앞에 앉아서 편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 서야 할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와 싸울 때면 꼭 저주는 우리 할아버지, 떠돌고 뛰어다녀도 가만히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하신 우리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 제가 있기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십년 후 계획은 제가 세워드릴 것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할아버지를 위하여, 오늘도 할아버지 댁에 들립니다.



#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

발행인\_정재욱 |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회, 신용희, 김춘원 |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전화 041·852·9005, 852·7600 | 인쇄처\_공주신문사(전화 041·853·8111)